

사서의 자기검열 양상과 인식에 관한 연구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terns and Perceptions of Librarians' Self-Censorship: Focusing on Public and School Libraries

임 정 훈 (Jeonghoon Lim)*

김 신 영 (Sin-Young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연구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논의 및 결론 |
| 3. 연구 방법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자기검열의 양상과 인식을 분석하고,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지적자유와 자기검열의 개념 및 유형을 고찰하고, 자기검열 경험이 있는 현직 사서 및 사서교사 26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면담 참여자들의 자기검열은 두 관중 모두 주로 자료 구입 단계에서 나타났으며, 외부 압력과 민원 우려가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자기검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연령·발달 수준 고려가, 부당성에 대해서는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권 침해와 장서 구성의 다양성 저해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공공도서관에서는 자기검열이 외부 압력과 행정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학교도서관에서는 교육 목적과 학생 보호라는 기관 특성을 통해 자기검열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자기검열 양상을 비교 분석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법적·제도적 차원의 실천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atterns and perceptions of self-censorship among public library librarians and school teacher librarians in Korea and explored practical measures to safeguard intellectual freedom. To this end, the concepts and types of intellectual freedom and self-censorship were reviewed,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6 practicing librarians and teacher librarians who had experienced self-censorship. The findings show that, among the participants, self-censorship occurred mainly at the material acquisition stage in both types of libraries, with external pressure and concern over patron complaints identified as the primary causes. Across both groups, its justification was attributed to user protection and consideration of users' age and developmental level, whereas the grounds for viewing it as unjustified centered 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freedom and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s well as the undermining of collection diversity. Meanwhile, in public libraries self-censorship was characterized more as a response to external pressure and administrative factors, whereas in school libraries it was more often justified through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urpose and student protec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comparative baseline data on the patterns of self-censorship in public and school libraries and suggests practical directions for improvement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s.

키워드: 지적자유, 자기검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 사서교사

Intellectual Freedom, Self-Censorship, Public Library, School Library, Librarian, Teacher librarian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mictoxic@kmu.ac.kr / ISNI 0000 0004 8339 2694) (제1저자)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nyoung@daegu.ac.kr / ISNI 0000 0004 7390 3462)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8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8월 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3): 5-25,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3.005>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도서관은 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평등하게 제공해 왔다. 이러한 역할은 도서관의 핵심 가치이자 사회적 기능의 토대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공론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 도서관에서는 특정 자료의 열람 제한, 폐기 요구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점차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서관의 자율적 장서개발이 위축되고, 사서의 전문적 판단이 제한되며,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부의 압력은 사서의 자기검열로 이어져, 도서관 운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흔드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김신영, 2024).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지적자유국(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OIF)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도서관 자료에 대한 검열 요구는 1,247건이며, 검열 대상이 된 도서는 4,240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5% 급증한 수치로, ALA가 침해 사례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발생 기관별로는 공공도서관이 54%, 학교도서관이 39%로 두 관중에 집중되었으며, 검열을 요구한 행위자로는 이용자(28%)가 가장 많았고, 학부모(24%), 압력단체(21%), 위원회 및 행정기관(13%)이 뒤를 이었다(ALA, 2024).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

2023-2024학년도에 발생한 도서 금지 건수가 10,0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EN America, 2024). 이러한 검열 급증 추세는 이후에도 이어져, 2025년에도 4,235종의 도서가 검열 대상이 되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ALA, 2026). 이처럼 도서관 지적자유를 둘러싼 갈등은 국외에서도 심화되고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검열과 지적자유 침해는 도서관 현장 전반이 직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책무에 해당한다. 국내 도서관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와 「도서관법」을 비롯한 법·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과 ALA 등 국제 도서관계의 선언과 지침을 수용하는 한편, 한국도서관협회의 관련 성명서와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적자유 보장에 힘써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는 사서가 외부의 압력이나 갈등을 우려하여 자료의 선정·수집·제공 과정에서 자기검열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기검열은 외부의 직접적인 검열이나 강제와 달리 사서 스스로가 잠재적인 갈등이나 비판을 예상하여 자료의 접근과 제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도서관의 지적자유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자기검열 실태와 발생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서관 현장에서 나타나는 자기검열의 양상과 사서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서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규명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적자유와 자기검열의 개념 및 유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자기검열의 원인, 발생 시점, 정당성과 부당성 인식, 도서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고 자기검열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1.2 선행연구

지적자유와 자기검열에 관한 해외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Asheim(1953)은 「검열이 아닌 선택(Not Censorship But Selection)」에서 장서 선택과 검열의 개념적 차이를 이론화하였다. 그는 선택이란 자료의 가치를 찾아 포함하려는 긍정적 행위인 반면, 검열은 특정 자료를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제한적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 논문은 이후 도서관계에서 전문적 장서 선택과 검열을 구분하는 이론적 기초로 널리 인용되어 왔으며, 자기검열 논의에도 적용되어 어떤 결정이 정당한 선택이고 어떤 결정이 검열인지를 판단하는 실천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Fiske(1959)는 캘리포니아 주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당수의 사서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의도

적으로 선정하지 않는 자기검열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자기검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민원 우려, 기관 내 압력, 사서 개인의 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usha(1972)는 미국 중서부 공공도서관 사서 624명의 태도 조사에서, 사서들이 지적자유 원칙에는 압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검열에 대해서는 다수가 찬반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중간 지대에 머물렀음을 확인하였다. Busha는 이를 개념으로서의 지적자유와 활동으로서의 검열 사이의 괴리로 규정하고, 사서들이 예상되는 검열 압력 앞에서 그 원칙을 관철할 만큼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였다.

Rickman(2010)은 미국 아칸소, 델라웨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학교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9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표본 전체로는 선정 과정에서 자기검열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60~69세 연령층, 정규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집단, 중등학교 근무자, 교육 경력 15년 이하 집단에서 자기검열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자기검열의 영향 요인을 내부-개인(internal-self), 외부-학교(external-school), 외부-지역사회(external-community)의 세 차원으로 체계화하였으며, 내부 요인 가운데서는 자료 내용에 대한 사서 자신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큰 규정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Oltmann(2016)은 오하이오주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검열과 지적자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조사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ALA 윤리강령의 지적자유 조항에

동의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반발을 우려하여 자료를 구입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극히 적었다. 개인적 신념과 ALA의 지적자유 입장이 충돌한 경험을 보고한 응답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Oltmann은 사서들이 그러한 갈등을 직업적 장서개발 결정에 반영하지 않으며, 지적자유 원칙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도 지적자유와 자기검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정현태(2000)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20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가 외부의 간섭뿐 아니라 사서 스스로 무의식 중에 행하는 자기검열에 있음을 일찍이 지적하였다. 그는 다수의 현장 사서가 자료선정 과정에서 검열적 판단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잠재적 자기검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명희(2004)는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도서관 지적자유와 법률적 기반과 금서, 유해도서 판정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음란물 판정을 둘러싼 양국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하고, 음란성을 이유로 한 금서 판정이 빈번해지는 환경에서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단체들이 검열로부터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청소년 보호 장치를 함께 다루었다.

장덕현(2011)은 Asheim의 선정과 검열의 구분을 국내 맥락에 적용하여, 자료를 배제하는 결정이 사서의 전문적 판단에서 비롯되면 정당한 선정으로, 외부 행위자의 개입에서 비롯되면 검열로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현장에서 항상 명확하게 적용되는 것

은 아니다. 배경재(2022)는 검열 사례를 정치, 법률, 선정성, 성범죄의 네 유형으로 범주화하고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양한 이유로 수서 제한이나 열람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는 사서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제한조치 검열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우며,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도서관 윤리선언의 원칙과 사서들의 현장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지적자유 침해는 외부 압력뿐 아니라 사서 내부의 자기검열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신영(2024)은 최근 국내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지적자유 침해가 특정 단체의 조직적 민원 제기나 일부 지자체장의 지시 또는 행정적 압박으로 인해 자료가 제적, 이관되는 문제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서의 전문적 판단을 약화시키고, 장서개발 과정에서 법적·정책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사서 스스로 위험 요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선정하지 않는 자기검열로 이어진다. 박혜선과 김기영(2016)은 초등학교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이 장서개발 정책의 부재,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영향력, 민원 가능성 등에 의해 강화된다고 밝히며, 특히 논란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장서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해외 선행연구는 자기검열 현상에 대한 분석과 선정, 검열의 이론적 구분 등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다. 국내 연구 역시 외부 압력, 제도적 한계, 사서의 자기검열 등이 도서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특정 사례나 단일 관중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도

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자기검열 양상을 비교하고 관종별 사서 인식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적자유의 정의와 범위

지적자유 개념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근거를 두며,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도서관에서 지적자유는 장서의 선정과 제공,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사회의 기본권이자 도서관 철학의 토대를 이룬다.

ALA는 지적자유를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정보를 찾고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1939년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그 보호 원칙을 강화해 왔다(ALA, 1939; 김신영, 2024). IFLA(1999) 역시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문」(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에서 도서관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김선호(2020)는 도서관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해외 문헌정보학 학자들의 논의를 분석하여, 중립성의 핵심이 정보접근의 자유와 정보봉사의 평등에 있으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2023년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도서관이 특정 이

념, 종교,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호해야 함을 천명하였다. 이후 2024년 8월 발간한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도서관 이용에 차별하지 아니하며 모든 정보와 사상, 그리고 창작물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24).

도서관의 지적자유 개념은 전통적인 도서 검열 문제를 비롯하여 정보 접근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장서개발 정책,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모든 유형의 도서관에 적용되며, 자료 형태도 디지털 정보까지 포괄한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필터링과 같은 디지털 환경의 쟁점까지 지적자유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김신영, 2024).

2.2 자기검열의 개념 및 유형

검열(censorship)은 특정 정보나 사상에 대한 접근과 유통을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서 검열은 “국가나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 신문, 잡지 및 기타의 출판물, 미술품, 영화필름 등을 심사, 열람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인 이유로 판매, 배포, 행동 등을 금지하는 행정사무”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자기검열이란 법령이나 외부의 명시적 강제가 없음에도 도서관 내부에서 스스로 자료 접근을 제한하거나 배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특정 주제의 도서를 애초에 소장하지 않거나 소장 후에도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기검열은 자료를 선정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자기검열 행위를 종합하여, 이를 자료의 선정, 접근, 제공, 폐기 단계에 따라 자료 선정 기피, 자료 접근 제한, 정보 제공 제한, 자료 폐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서는 특정 주제나 관점을 가진 자료, 논쟁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 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Fiske, 1959; 박혜선, 김기영, 2016). 둘째, 사서는 이용자의 항의나 민원을 예상하여 특정 자료를 이용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거나 자료 검색 제외, 열람 제한 등의 방식으로 자료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정현태, 2000; Oltmann, 2016). 셋째, 사서는 민원 제기나 비판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거나 특정 자료에 대한 이용 안내를 소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김선호, 2020). 넷째, 사서는 외부 압력이나 민원 때문에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폐기하거나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김신영, 2024).

이러한 자기검열은 외부 압력에 대한 우려, 제도적 기준의 부재, 사회적 분위기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강화된다. Fiske(1959)는 장서관 발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서가 개인적 판단에 의존할 때 자기검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선호(2020)는 도서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사서의 '무위(inaction)'

로 귀결될 때 논쟁적 자료를 회피하거나 배제하는 소극적 자기검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않으려는 중립성의 실천 자체가 특정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자기검열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2024)는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에서 사서에 의한 자기검열 역시 검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장서관 개발 정책의 수립을 통해 자료 선정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연구 방법

자기검열은 외부의 강제 없이 사서 스스로 자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은밀한 행위로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검열의 발생 빈도를 측정하기보다, 실제 경험자의 진술을 통해 그 원인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주관적 판단표집(judgement sampling)을 이용하여, 수서, 자료 대출, 배치 과정에서 자기검열을 경험한 현직 공공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는 도서관계 지적자유 관련 선행연구(김신영, 2024; 박혜선, 김기영, 2016; 배경제, 2022)를 참조하여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조사 항목은 기본정보, 자료 선정 기준, 자기검열의 원인 및 발생 시점, 자기검열의 기준, 자기검열의 정당성과 부당성, 자기검열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대한 인식, 지적자유 보장 방안, 자기검열의 사례 등이다.

〈표 1〉 자기검열 관련 면담 조사 항목

구분	조사 항목
기본정보	관중, 지역, 경력, 성별, 연령
자료 선정 기준	자료 선정의 중요 고려 요소
자기검열	자기검열의 원인 및 발생 시점 자기검열의 기준 자기검열의 정당성과 부당성 자기검열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대한 인식 지적자유 보장 방안
자기검열 사례	자기검열 경험 사례

연구 참여자는 총 26명으로, 공공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각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는 장서 선정 업무를 담당하며 자기검열 경험이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목적표집 하되, 초기 참여자의 소개를 통한 눈덩이 표집을 병행하였다(Patton, 2015).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면담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회당 약 60~80분이 소요되었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사전에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와 녹음에 대한 동

의를 받았으며, 녹음 자료는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질문 주제별로 응답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코딩하고, 유사한 응답을 묶어 주제별 세부 항목을 도출하였다. 각 항목별 언급 빈도를 계산하여 표로 제시하였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참여자가 언급한 요소를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때 제시한 빈도는 응답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관중	지역	경력	성별	연령	관중	지역	경력	성별	연령
공공 도서관	경기	13년	여	40대	학교 도서관	경기	21년	여	40대
	대구	25년	여	50대		경기	20년	여	40대
	대구	14년	여	40대		경기	20년	여	40대
	대구	7년	여	30대		경기	15년	여	40대
	대구	8년	여	30대		대전	20년	여	40대
	대구	20년	여	50대		대전	21년	여	40대
	대구	10년	남	30대		세종	19년	여	40대
	대구	10년	남	40대		대구	15년	여	40대
	대구	14년	남	40대		대구	20년	여	50대
	경북	6년	여	30대		대구	20년	남	40대
	경북	6년	남	30대		경북	22년	여	40대
	울산	7년	여	40대		경북	20년	여	40대
	경남	7년	여	30대		전남	20년	여	40대

의 분포와 상대적 비중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통계적 대표성이나 모집단 추정을 위한 수치가 아니라 면담 참여자들의 인식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지표이다. 자기검열 사례는 2장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코딩의 적절성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 2인의 검토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이견이 있는 항목은 원자료를 재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인구 통계 분석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6년에서 25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령은 30대에서 50대에 분포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성 4명, 여성 9명이었으며, 소속 지역은 경기,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경우, 15년에서 22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령은 40대에서 50대에 분포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성 1명, 여성 12명이었다. 소속 지역은 경기, 대전, 세종, 대구, 경북, 전남 등으로 확인되었다.

4.2 자료 선정 기준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료 선정 기준을 분석한 결과, 자료의 내용 및 주제와 자료의 최신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9명). 그 외에 이용자 요구(8명), 예산(6명), 외부 기관 추천 및 권장도서(6명), 지역 및 프로그램 연계 도서(4명), 장서 구성의 균형(4명), 저자의 수상 이력(3명), 분실 및 오염 자료 대체(1명), 자관 특화 자료 우선 선정(1명)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3〉 참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연계 성과 이용자 특성(학생의 발달 수준, 흥미 등)을 자료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12명). 이 외에 자료의 내용 및 주제(8명), 이용자 요구(7명), 예산(5명),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연계 도서(4명), 장서 구성의 균형(2명), 외부 기관 추천 및 권장도서

〈표 3〉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료 선정 기준

순	요소	빈도
1	자료의 내용 및 주제	9
2	자료의 최신성	9
3	이용자 요구	8
4	예산	6
5	외부 기관 추천 및 권장도서	6
6	지역 및 프로그램 연계 도서	4
7	장서 구성의 균형	4
8	저자의 수상 이력	3
9	분실 및 오염 자료 대체	1
10	자관 특화 자료 우선 선정	1

〈표 4〉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자료 선정 기준

순	요소	빈도
1	교육과정 연계성	12
2	이용자 특성(학생 발달 수준, 흥미 등)	12
3	자료의 내용 및 주제	8
4	이용자 요구	7
5	예산	5
6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연계 도서	4
7	장서 구성의 균형	2
8	외부 기관 추천, 권장도서	1
9	도서의 출판 정보	1

(1명), 도서의 출판 정보(1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4.3 자기검열의 원인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외부의 압력이나 민원 우려(9명)와 부적절한 내용 차단(8명)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저자 이력 및 사회적 논란 여부(5명), 기관의 기준 및 상급자의 지시 반영(4명), 사서 개인의 가치관 또는 직무 판단(3명), 예산 제약에 따른 선택적 수서 필요성(3명), 연령 구분이 어려운 도서관 구조(2명)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5〉 참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경우 외부의 압력이나 민원 우려(12명)와 부적절한 내용 차단(11명)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저자 이력 및 사회적 논란 여부(9명), 사서교사 개인의 가치관 또는 직무 판단(6명), 학교 및 교육 관련 기준(5명), 예산 제약에 따른 선택적 수서 필요성(4명), 장서 구성 및 도서관 분위기(1명), 전문성 부족(1명)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6〉 참조).

4.4 자기검열의 발생 시점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은 주로 자료 구입 시에 나타났으며, 10명이 이 시점에 자기검

〈표 5〉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 원인

순	요소	빈도
1	외부의 압력이나 민원 우려	9
2	부적절한 내용 차단	8
3	저자 이력 및 사회적 논란 여부	5
4	기관의 기준 및 상급자의 지시 반영	4
5	사서 개인의 가치관 또는 직무 판단	3
6	예산 제약에 따른 선택적 수서 필요성	3
7	연령 구분이 어려운 도서관 구조	2

〈표 6〉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자기검열 원인

순	요소	빈도
1	외부의 압력이나 민원 우려	12
2	부적절한 내용 차단	11
3	저자 이력 및 사회적 논란 여부	9
4	사서교사 개인의 가치관 또는 직무 판단	6
5	학교 및 교육 관련 기준	5
6	예산 제약에 따른 선택적 수서 필요성	4
7	장서 구성 및 도서관 분위기	1
8	전문성 부족	1

열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자기검열은 수서에 국한되지 않았다. 민원 발생 또는 사후 장서 점검 시 재검토(3명), 도서 대출 시 이용자 특성 확인(2명), 서가 배가 시 자료의 적절성 재검토(1명) 등 수서 이후의 여러 단계에서도 자기검열이 나타났다(〈표 7〉 참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경우에도 자기검열은 자료 구입 시에 가장 두드러졌으며, 모든 응답자(13명)가 이 시점에 자기검열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서 대출 시 자료의 적절성 확인(2명), 서가 배가 시 자료의 적절성 재검토(1명) 등 수서 이후 단계에서도 자기검열이 나

타났다(〈표 8〉 참조).

4.5 자기검열의 기준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 기준으로는 민원 등 외부 압력을 의식한 선제적 배제(10명)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어서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결정(9명), 개인 가치관이나 경험이 개입된 주관적 판단(8명), ‘문제 가능성’ 예측에 따른 위험 회피(7명),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결정(6명)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9〉 참조).

〈표 7〉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 발생 시점

순	요소	빈도
1	매 자료 구입 시	10
2	민원 발생 또는 사후 장서 점검 시 재검토	3
3	도서 대출 시 이용자 특성 확인	2
4	서가 배가 시 자료의 적절성 재검토	1

〈표 8〉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자기검열 발생 시점

순	요소	빈도
1	매 자료 구입 시	13
2	도서 대출 시 자료의 적절성 확인	2
3	서가 배가 시 자료의 적절성 재검토	1

〈표 9〉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 기준

순	요소	빈도
1	민원 등 외부 압력을 의식한 선제적 배제	10
2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결정	9
3	개인 가치관이나 경험이 개입된 주관적 판단	8
4	‘문제 가능성’ 예측에 따른 위험 회피	7
5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결정	6

〈표 10〉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자기검열 기준

순	요소	빈도
1	민원 등 외부 압력을 의식한 선제적 배제	11
2	개인 가치관이나 경험이 개입된 주관적 판단	10
3	‘문제 가능성’ 예측에 따른 위험 회피	9
4	학생 보호, 교육기관 성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8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자기검열 기준으로 는 민원 등 외부 압력을 의식한 선제적 배제(11명)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어서 개인 가치관이나 경험이 개입된 주관적 판단(10명), ‘문제 가능성’ 예측에 따른 위험 회피(9명), 학생 보호, 교육기관 성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8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4.6 자기검열의 정당성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 정당성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보호 및 연령 적합성 고려(7명)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외에 부적절한 내용 차단(6명), 공공도서관의 공공성 및 신뢰성 유지(5명), 사회적 논란 방지 및 민원 예방(5명) 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 운용(3명), 실무 부담 완화 및 업무 편의(3명),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인식(2명) 등도 확인되었다(〈표 11〉 참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자기검열 정당성을

분석한 결과, 학생 보호 및 발달 수준 고려(11명)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외에 교육과정 및 교육 목표 지원(6명), 부적절한 내용 차단(5명), 사회적 논란 방지 및 민원 예방(5명) 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 운용(3명), 도서관 운영의 책임과 신뢰 확보(3명), 학교 공동체의 합의 반영(2명), 사서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2명) 등도 확인되었다(〈표 12〉 참조).

4.7 자기검열의 부당성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 부당성을 분석한 결과,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권 침해(10명), 장서 구성의 다양성 저해(6명), 주관적 기준으로 인한 편향(5명)이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이용자 선택권 제한(3명), 검열 기준의 모호성(2명), 도서관 운영의 신뢰성 및 공공성 훼손(2명), 사서의 전문성 약화 및 역할 왜곡(2명) 등이 확인되었다(〈표 13〉 참조).

〈표 11〉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에 대한 정당성

순	요소	빈도
1	이용자 보호 및 연령 적합성 고려	7
2	부적절한 내용 차단	6
3	공공도서관의 공공성 및 신뢰성 유지	5
4	사회적 논란 방지 및 민원 예방	5
5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6	실무 부담 완화 및 업무 편의	3
7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인식	2

〈표 12〉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자기검열에 대한 정당성

순	요소	빈도
1	학생 보호 및 발달 수준 고려	11
2	교육과정 및 교육 목표 지원	6
3	부적절한 내용 차단	5
4	사회적 논란 방지 및 민원 예방	5
5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6	도서관 운영의 책임과 신뢰 확보	3
7	학교 공동체의 합의 반영	2
8	사서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2

〈표 13〉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에 대한 부당성

순	요소	빈도
1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권 침해	10
2	장서 구성의 다양성 저해	6
3	주관적 기준으로 인한 편향	5
4	이용자 선택권 제한	3
5	검열 기준의 모호성	2
6	도서관 운영의 신뢰성 및 공공성 훼손	2
7	사서의 전문성 약화 및 역할 왜곡	2

〈표 14〉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자기검열에 대한 부당성

순	요소	빈도
1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권 침해	8
2	장서 구성의 다양성 저해	8
3	주관적 기준으로 인한 편향	6
4	학생 선택권 제한	3
5	검열 기준의 모호성	3
6	사서 역할 위축 및 부담 증가	3
7	도서관 이용률 감소	2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자기검열 부당성을 분석한 결과,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권 침해(8명), 장서 구성의 다양성 저해(8명), 주관적 기준으로 인한 편향(6명)이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학생 선택권 제한(3명), 검열 기준의 모호성(3명), 사서 역할 위축 및 부담 증가(3명), 도서관 이용률 감소(2명) 등이 확인되었다.

4.8 자기검열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측면으로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자료 환경 조성(6명), 이용자 만족도 및 도서관 신뢰 향상(2명)이 언급되었다.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 장서 구성의 다

양성 저해(11명),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권 제한(5명),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 및 학습 기회 축소(3명), 사서의 업무 부담 및 책임 가중(3명), 도서관 이용률 감소 및 위축(3명) 등이 나타났다(<표 15> 참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자기검열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측면으로 학생 보호 및 안전한 자료 환경 조성(9명), 도서관 신뢰 향상(2명)이 언급되었다.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 장서 구성의 다양성 저해(12명),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권 제한(5명), 학생의 비판적 사고 및 학습 기회 축소(4명), 도서관 운영의 부담 및 갈등 증가(3명), 도서관 이용률 감소 및 위축(3명) 등이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5〉 사서의 자기검열이 공공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순	요소	빈도
1	장서 구성의 다양성 저해	11
2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자료 환경 조성	6
3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권 제한	5
4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 및 학습 기회 축소	3
5	사서의 업무 부담 및 책임 가중	3
6	도서관 이용률 감소 및 위축	3
7	이용자 만족도 및 도서관 신뢰 향상	2

〈표 16〉 사서교사의 자기검열이 학교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순	요소	빈도
1	장서 구성의 다양성 저해	12
2	학생 보호 및 안전한 자료 환경 조성	9
3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권 제한	5
4	학생의 비판적 사고 및 학습 기회 축소	4
5	도서관 운영의 부담 및 갈등 증가	3
6	도서관 이용률 감소 및 위축	3
7	도서관 신뢰 향상	2

4.9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자기검열 경험이 있는 사서라는 점에서, 이들이 일체의 검열을 반대하는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하는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9명이 동의, 3명이 비동의 의견을 나타냈으며,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동의 이유로는 도서관 핵심 가치로서 지적자유(6명),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원칙(5명), 이용자 중심 기관으로서의 정체성(4명), 사서 전문성, 자율성 보호 기

준(4명), 검열에 의한 정보 환경 위축에 대한 문제의식(3명)이 언급되었다. 비동의 이유로는 특정 연령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3명), 이용자의 정보 판단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3명), 민원·행정적 제재 등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3명)이 확인되었다(〈표 17〉 참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경우 7명이 동의, 6명이 비동의 의견을 나타냈다. 동의 이유로는 이용자 자료 접근 제한의 부당성(6명), 사서 전문성·자율성 보호 기준(6명), 자기검열에 따른 장서의 주관적 편향 우려(4명), 이용자의 자율적 정보 판단 경험 필요성(4명), 교사의 정치, 종교 중립 의무와 동일(3명)이 언급되었다.

〈표 17〉 사서의 「도서관인 윤리선언」 동의/비동의 이유

범주	순	요소	빈도
동의	1	도서관 핵심 가치로서 지적자유	6
	2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원칙	5
	3	이용자 중심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4
	4	사서 전문성, 자율성 보호 기준	4
	5	검열에 의한 정보 환경 위축에 대한 문제의식	3
비동의	1	특정 연령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	3
	2	이용자의 정보 판단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	3
	3	민원·행정적 제재 등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	3

〈표 18〉 사서교사의 「도서관인 윤리선언」 동의/비동의 이유

범주	순	요소	빈도
동의	1	이용자 자료 접근 제한의 부당성	6
	2	사서 전문성·자율성 보호 기준	6
	3	자기검열에 따른 장서의 주관적 편향 우려	4
	4	이용자의 자율적 정보 판단 경험 필요성	4
	5	교사의 정치, 종교 중립 의무와 동일	3
비동의	1	제한 없는 정보 접근 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	5
	2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생 보호 장치의 필요성	4
	3	‘일체의 검열 반대’ 원칙 적용의 한계	4
	4	사서교사의 민원 대응 부담 가중	3

비동의 이유로는 제한 없는 정보 접근 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5명),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생 보호 장치의 필요성(4명), ‘일체의 검열 반대’ 원칙 적용의 한계(4명), 사서교사의 민원 대응 부담 가중(3명)이 확인되었다.

4.10 지적자유 보장 방안

공공도서관 사서의 지적자유 보장 방안을 분석한 결과,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9명)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어서 장서개발 정책 및 검열 대응 절차의 명문화(8명),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7명), 기관 차원의 대응 및 책임 분담(6명), 지적자유 관련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6명), 장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5명), 이용자 및 시민 대상

인식 개선(4명), 사서 간 지적자유 네트워크 구축(3명)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19〉 참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경우에도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9명)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어서 장서개발 정책 및 검열 대응 절차의 명문화(6명),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5명), 전문직으로서의 판단 존중(5명), 지적자유 관련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2명),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2명)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20〉 참조).

4.11 자기검열의 사례

본 절에서는 면담에서 수집된 사례를 2장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자기

〈표 19〉 사서의 지적자유 보장 방안 의견

순	요소	빈도
1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9
2	장서개발 정책 및 검열 대응 절차의 명문화	8
3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	7
4	기관 차원의 대응 및 책임 분담	6
5	지적자유 관련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	6
6	장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5
7	이용자 및 시민 대상 인식 개선	4
8	사서 간 지적자유 네트워크 구축	3

〈표 20〉 사서교사의 지적자유 보장 방안 의견

순	요소	빈도
1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9
2	장서개발 정책 및 검열 대응 절차의 명문화	6
3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	5
4	전문직으로서의 판단 존중	5
5	지적자유 관련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	2
6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검열이 실제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검토한다. 수집된 사례는 총 53건으로 자료 선정 기피 23건, 자료 접근 제한 12건, 정보 제공 제한 10건, 자료 폐기 8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사례는 성교육 도서, 성범죄 작가의 도서, 소설 「채식주의자」 등 특정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송현경(2025)이 제시한 주요 지적 자유 쟁점과 유사하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선정 기피는 사서 및 사서교사가 논쟁적 주제, 성·정치·종교 등 민원이 예상되는 자료를 수서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면담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잔인성, 선정성,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 책들은 어린이 도서는 물론이고 성인 도서라도 구입하지 않아요. 수서 담당자의 도서 구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끼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K공공도서관 임OO

‘성교육’이라는 주제는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하기에 성교육 관련 도서를 구입할 때 내용이 지나치게 직설적이거나 구체적인 경우 여러 차례 자기검열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선정 단계에서 아예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하고요, 구입한 책들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성교육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겠죠.

J학교도서관 구OO

둘째, 자료 접근 제한은 이미 소장한 자료에 대해 이용자의 접근을 물리적, 시스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항의나 민원을 예상하여 자료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거나 검색에서 제외하고 열람을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2024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가의 작품이 매우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작가의 작품 중 일부 표현이나 묘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결국 본관에서도 그 책들을 청소년 이용 제한 도서로 분류하거나 일반 서가에서 아예 제외시켰어요.

D공공도서관 최OO

초등학생의 특성상, 성적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의 특정 부분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출 반납대 옆이나 별도의 서가를 마련해서 「Why? 성」, 「우리 몸」 등 성교육 관련 책을 대출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B학교도서관 문OO

셋째, 정보 제공 제한은 사서 및 사서교사가 민원 제기나 비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거나 특정 자료에 대한 이용 안내를 소극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추천도서 목록을 배부할 때 성교육 도서가 포함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용자분이 이 책은 표현이 너무 상세하고 정확하다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여러 기관과 단체가 추천한 도서지만 결국 그 책을 목록에서 제외했어요. 그 이후로는 성교육 도서를 아예 목록 작성에서 배제하게 되었고요.
Y공공도서관 김OO

동료 교사가 한 신문에 탈북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추천했다가 정치색으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후 해당 저자의 책이나 탈북민, 정치인이 쓴 도서를 수서하거나 추천할 때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H학교도서관 이OO

넷째, 자료 폐기는 사서 및 사서교사가 외부 압력이나 민원을 이유로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폐기하거나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저자가 표절이나 법적 혐의 등으로 논란이 있는 도서를 처리한 경험이 있어요.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동료 직원이 뉴스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당 도서는 이용자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아예 폐기 처리하거나 해요.
N공공도서관 조OO

인근 중학교에 근무했을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학생들이 많이 찾아서 책이 찢어질 정도였는데 학부모 봉사 위원 가운데 한 분이 “이 책은 선정적이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 있네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창고에 넣고 그해 폐기 처리한 경험이 있어요.

K학교도서관 황OO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26명을 대상으로 자료 선정 기준, 자기검열의 원인 및 발생 시점, 기준, 정당성과 부당성,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인 윤리 선언」에 대한 인식, 지적자유 보장 방안, 자기검열 경험 사례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검열은 사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외부 압력, 제도적 기준의 불명확성, 민원에 대한 보호 장치의 부재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중에 따라 자기검열의 양상이 달랐는데, 학교도서관에서는 교육 목적과 학생 보호라는 기관 특성이 자기검열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내면화된 반면, 공공도서관에서는 외부 압력과 행정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자기검열이 지적자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은 자기검열을 이용자 보호나 연령 적합성을 이유로 정당화하면서도, 그것이 지적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고 장서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부당성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정당화한다는 점은, 자기검열이 원칙에 대한 무지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내리는 현실적인 타협임을 보여준다. 사서들은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도서관인 윤리 선언」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실제 업무에서는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 그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신념과 실천이 괴리되는 양상은 Busha(197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다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괴리를 개인의 신념 문제로 돌리기보다 검열 압력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가치 충돌은 학교도서관에서 한층 첨예하게 나타났다. 사서교사들은 학생 보호를 자기검열의 근거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도 공공도서관 사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로는 제한 없는 정보 접근이 학생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여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자신을 교사로 규정하며 그 책무를 자기검열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곧 사서교사가 지닌 교사로서의 보호 의무와 사서로서의 지적자유 수호 책무가 충돌하는 이중적 위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자기검열은 외부 압력에 대한 수동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서교사의 직무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검열은 '일체의 검열 반대'라는 원칙적 선언만으로는 완화되기 어렵다. 학교도서관의 지적자유 정책과 교육은 검열 반대를 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보호와 지적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처럼 자기검열은 개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서와 사서교사 모두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지적자유 보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러한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자기검열이 발생하는 만큼, 「도서관법」에 지적자유 보장과 검열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서의 전문적 판단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도서관협회(2024)가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서관법」 개정과 가칭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의 제정을 촉구한 것과 방향을 같이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장서관리 정책과 자료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민원 대응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서가 개인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둘째, 자료선정위원회나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여 사서의 판단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서들은 자기검열이 공식 절차 없이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를 지적자유 보장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자료 선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사서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될수록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는 만큼, 자료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집단적 검토 절차를 제도화하고 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및 재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서와 사서교사 모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지적자유 보장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이용자 특성과 기관 성격이 상이한 만큼, 관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자료 선정 기준과 민원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도서관의 경우 학생 보호와 지적자유 보장의 균형을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적자유 개념과 원칙, 자료선택과 검열의 구분,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력 단계별 재교육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서가 외부 압력 속에서도 전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장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서들은 민원과 사회적 반발에 대한 우려가 자기검열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장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지적자유 보장의 실천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도서관과 지역사회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원에 대한 우려가 자기검열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료 선정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이의가 제기된 자료에 대한 검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 대상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비판적

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도서관이 민주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지적자유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나타나는 자기검열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서 및 사서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두 관종을 함께 다루어 자기검열 양상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소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두 관종의 경력 분포가 상이하여, 관종 간 차이로 해석한 양상이 경력 단계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자기검열 경험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도서관 현장에서 지적자유를 지켜 온 사서의 인식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조사, 다양한 경력 단계의 비교, 국제 비교 등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선호 (2020). 도서관직의 정치적 중립성: 무위와 비평. 대한정치학회보, 28(3), 1-22.
<https://doi.org/10.34221/KJPS.2020.28.3.1>
- 김신영 (2024).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양상과 대처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189-217.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189>

- 박혜선, 김기영 (2016). 초등학교도서관의 자료 선정에서 자기 검열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3), 239-262. <https://doi.org/10.3743/KOSIM.2016.33.3.239>
- 배경재 (2022). 지적자유와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의 현장 인식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277-294. <https://doi.org/10.4275/KSLIS.2022.56.2.277>
- 송현경 (2025). 2000년대 이후 신문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547-573. <https://doi.org/10.4275/KSLIS.2025.59.1.547>
- 이명희 (2004).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노력과 금서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1), 193-216.
- 장덕현 (2011). 장서개발에 있어서 지적자유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65-182. <https://doi.org/10.16981/kliss.42.1.201103.165>
- 정현태 (2000).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243-264.
- 한국도서관협회 (2024).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39). Library bill of right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eports record number of unique book titles challenged in 2023. Available: <https://www.ala.org/news/2024/03/american-library-association-reports-record-number-unique-book-titles>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6). Censorship by the numbers: banned books data. Available: <https://www.ala.org/bbooks/book-ban-data>
- Asheim, L. (1953). Not censorship but selection. Wilson Library Bulletin, 28, 63-67.
- Busha, C. H. (1972).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The climate of opinion in midwestern public libraries. The Library Quarterly, 42(3), 283-301. <https://doi.org/10.1086/620044>
- Fiske, M. (1959). Book Selection and Censorship: A Study of School and Public Libraries in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1999).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20.500.14598/1424>
- Oltmann, S. M. (2016). Public librarians' views on collection development and censorship. Collection Management, 41(1), 23-44. <https://doi.org/10.1080/01462679.2015.1117998>
- Patton, M. Q. (2015).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PEN America (2024). Banned in the USA: beyond the shelves. Available:

<https://pen.org/report/beyond-the-shelves/>

Rickman, W. (2010). A study of self-censorship by school librarians. *School Library Research*, 1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 Kyung Jae (2022). A field perception and agenda of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issues in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2), 277-294. <https://doi.org/10.4275/KSLIS.2022.56.2.277>

Chang, Durk Hyun (2011). Intellectual freedom issues in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165-182. <https://doi.org/10.16981/kliss.42.1.201103.165>

Joung, Hyun-Tae (2000).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reedom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243-264.

Kim, Seon-Ho (2020). Librarianship's political neutrality: inaction and critique.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3), 1-22. <https://doi.org/10.34221/KJPS.2020.28.3.1>

Kim, Sin-Young (2024). Aspects of intellectual freedom restrictions in libraries and countermeasur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2), 189-217.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189>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24). *KLA Guidelines on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ri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Lee, Myeong-Hee (2004). Libraries' efforts to preserve intellectual freedom and banned book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5(1), 193-216.

Park, Hyeseon & Kim, Giyeong (2016).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elf-censorship in selection in elementary schoo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239-262. <https://doi.org/10.3743/KOSIM.2016.33.3.239>

Song, Hyunkyung (2025). A case study of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on newspaper big data since the 200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1), 547-573. <https://doi.org/10.4275/KSLIS.2025.59.1.547>

